

# 나성범 “올해 자신 있다…타이거즈 목표는 ‘매년 우승’”

2년 연속 주장 맡으며 타이거즈 'V13' 도전 전면에서  
“부상만 없다면 성적 따라올 것…자만하지 않고 준비”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미국 어바인=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우승 주장' 나성범이 '연패'를 기리고 있다.

미국 어바인에서 전지훈련 중인 나성범은 “올해는 또 다른 해이지만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자신감 있다”고 2025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올 시즌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팀 전면에서 나성범의 ‘믿는 구석’은 동료들이다.

나성범은 “우승 한 번도 하는 것도 힘들고, 연패는 더 힘들겠지만 충분히 우리 선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수들 공 던지는 것 보면 준비 잘한 것 같다. 야수들도 몸을 다 잘 만들어온 것 같다. 나도 나름 잘 준비해서 왔고, 올해는 또 다른 해이지만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에도 KIA는 막강 전력으로 꼽힌다. 또 지난 시즌 우승이라는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고, 주머니 두둑하니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생겼다.

나성범은 “올 시즌 KIA에서 4번째 시즌이다. 옛 그제 KIA 입단식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고, 그사이 우승도 했다. 입단식 하면서 ‘우승하고 싶다. 여기 있는 멤버들과 하고 싶다. 우승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이뤄져 기쁘다”며 “광주에서 37년 만의 우승 기록이었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라 뜻깊다. 선수들의 목표는 매년 우승이다.

우승하려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9개 구단 선수들도 모두 열심히 하는 것이다. 우승하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퍼레이드 해 봤고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고 동기부여가 됐다. 우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수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승을 또 하고 싶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혔다.

자신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즌이지만 연패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있다. 첫 번째는 부상은 건강한 시즌이다. 지난 시즌 KIA는 선발진의 줄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나성범도 부상으로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나성범은 “작년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 선발이 부상으로 4명이 빠지기도 했는데 부상만 없다면 우리팀 성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며 “개인적으로도 부상이 있었다. 후반에는 예전처럼 근육경련도 있어서 심리적으로 움츠러든 것도 있었다. 그런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트레이닝 코치랑 이야기 잘하면서 몸 잘 만들고, 준비 잘하고 있다. 부상만 없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 부담은 안 된다. 부상만 안 당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존 선수들의 좋은 움직임 속 새로운 전력들도 나성범의 기대감을 키운다. 3년을 함께한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아쉬운 작별을 선택한 KIA는 올 시즌 패트릭 위즈덤에게 중심 타선을 맡기게 된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함께 아담 올러가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나성범은 “소크라테스와 헤어져서 아쉽지만 팀



KIA 타이거즈 주장 나성범(가운데)이 16일 미국 어바인 존 알토벨리 파크 야구장에서 훈련 중 동료들과 게임을 하고 있다.

의 결정이고, 외국인 선수들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위즈덤은 벌써 다 적응했다. 성격이 워낙 좋다. 주장이나 위즈덤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 시킬까 고민했는데 성격이 너무 좋다. 어떻게든 빨리 어울리려고 하고, 어려움 없이 하는 것 같다”며 “올

래와도 시간 나면 대화하려고 하는데, 네일이 1년 있었기 때문에 잘 도와주고 있다.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 도움이 되고 있어서 걱정 없다. (조)상우도 잘 던지는 투수니까 별문제 없을 것 같다. 기대만 된다”고 말했다.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보고 있는 2025시즌, 우승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 전제 조건은 ‘초심’이다. 나성범은 “자만하면 안 되고 낮은 자세로 잘 준비하면 충분히 작년엔 했던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또 다른 우승 순간을 그렸다. /글:사진=wool@

## 비 겠다…첫 라이브 피칭도 ‘맑음’



KIA 타이거즈가 16일 미국 어바인 존 알토벨리 파크 야구장에서 스프링캠프 첫 라이브 피칭을 진행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비에 막혔던 ‘호랑이 군단’의 걸음이 빨라졌다.

미국 어바인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16일 캠프에서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곳은 날씨로 예정보다는 날씨가 미뤄졌지만 시즌 준비는 ‘이상 무’다.

KIA 타이거즈는 예상치 못한 비를 만나 캠프 중반 어려움을 겪었다.

예년과 다르게 어바인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KIA는 그라운드 훈련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13일 실내연습장에서 훈련을 했던 KIA는 14일 휴식일을 보낸 뒤 15일 다시 비를 만났다.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면서 KIA는 다시 또 실내연습장에서 절반의 훈련을 소화했다.

이어진 비로 훈련량은 부족하지만 비시즌 기간 선수들이 몸관리를 잘해온 만큼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다. 문제는 실전 감각이다.

어바인에서 1차 전지훈련을 치르는 KIA는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22일 히로시마전

일정 차질에도 시즌 준비 이상무  
투수 12명 오전·오후 나눠 피칭  
야수들 타자·주자로 나와 호흡  
20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캠프

을 시작으로 한화 이글스(2월 25일), LG 트윈스(2월 27일), 삼성 라이온즈(3월 2일), KT 위즈(3월 3일)와 5차례 연습경기를 갖는다.

실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비 때문에 실전 첫 단계인 라이브 시작이 늦어졌다.

불편 피칭을 해왔던 투수들은 타자를 타석에 세우고 정교함을 더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 타자들도 투수들은 마주하고 공을 보면서 눈에 익혀야 하지만 날씨 변수에 KIA는 위망직했다.

덕분에 KIA는 16일 ‘라이브 데이’를 보냈다.

이날 KIA는 오전·오후조로 나눠 하루 내내 라이브 훈련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제임스 네일을 시작으로 아담 올러, 윤영철, 김도현이 이번 캠프 첫 라이브 피칭에 나섰다. 오후 1시부터는 황동하, 최지민, 김기훈, 유승철, 김대유, 김태형, 이준영, 박도규 등 8명의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오전조는 15구씩 2세트, 총 30개의 공을 던졌다. 오후조는 20구씩 던지면서 감을 잡았다.

야수들도 타자와 주자로 역할을 하면서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KIA는 이번 캠프 시작 이후 가장 바쁘고, 긴장감 넘치는 하루를 보냈다. 동시에 라이브 피칭을 하는 것으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낸 KIA는 날씨 고민도 덜었다.

기대했던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 첫 라이브 피칭을 잘 진행했고, 남은 캠프 기간 어바인에 비 예보가 없는 만큼 KIA의 시즌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끝내 못 연 골문…광주FC 개막전 무승부

안방서 수원과 0-0…4700여 관중 2월 축구 만끽

광주가 아쉬운 무승부로 2025시즌을 열었다.

광주FC는 지난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025 개막전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53%의 점유율을 가져온 광주의 7개의 슈팅(유효슈팅 3개)을 날리면서 5개의 슈팅과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한 수원FC에 앞섰지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많은 변화가 있는 시즌, 새 얼굴들이 광주 유니폼을 입고 첫선을 보였다.

새로 합류한 베테랑 민상기가 이민기, 안영규, 김진호와 수비진을 구축했고, 중원에는 박정인이 신고식에 나섰다. 박정인은 문민서, 이강현, 김한길과 스타팅으로 나서 허리싸움을 했다.

그리고 돌아온 에이스 헤이스와 이적생 박인혁이 공격 전면에 섰다.

전반 4분 만에 광주의 유효슈팅이 기록됐다. 문민서가 2025시즌 개막을 알리는 시원한 슈팅을 날리면서 첫 골 사냥에 나섰다. 상대 골키퍼 안준수의 호수비에 막혔다. 광주가 흐른 공을 잡아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헤이스의 매서운 슈팅마저 문전에 있던 상대 수비 발에 막혔다.

전반 35분에는 박인혁이 위력적인 원발 슈팅으로 상대를 압박했다.

이어진 공격에서는 헤이스와 박인혁을 거쳐 문민서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골키퍼 맞고 흐른 공을 문민서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다.

0-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 12분 교체 카드로 변화를 줬다.

이강현, 박정인, 김한길을 불러들인 이정효 감독이 박태준, 오후성, 아사니를 투입했다.

후반 중반 광주가 몇 차례 수원FC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후반 16분 안데르손이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아낸 뒤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안영규가 막고 흘렸다. 안데르손은 3분 뒤 다시 한번 광주 골대를 겨냥했다. 중원에서 공을 뺏기면서 수원FC 이재원이 그대로 공을 몰고 광주 진영으로 향했다. 공을 넘겨받은 안데르손의 원발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김경민이 발을 뺀 공을 막아냈다.

후반 21분 박인혁이 상대가 넘어진 사이 공을 잡고 올라갔지만 슈팅이 상대 맞고 흘렀다. 25분에는 헤이스의 슈팅이 나왔지만 골대를 지나쳤다.

후반 33분 또 다른 새얼굴 황재환이 박인혁을 대신해 광주 데뷔전에 나섰다. 그리고 1분 만에 슈팅



광주FC 박인혁이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025 개막전에서 공을 몰고 있다. 〈광주FC 제공〉

까지 시도했다. 오른쪽에서 아사니에 이어 헤이스에게 공이 연결됐다. 헤이스가 문전에 있던 황재환에게 공을 넘겨줬고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후반 41분 상대 진영에서 아사니의 슈팅이 불발된 뒤 역습 상황이 전개됐다. 안데르손이 공을 몰고 중원을 지나 광주 문전까지 내달린 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오프키르에게 공을 넘겨줬다. 오프키르의 오른발 슈팅이 살짝 골대를 벗어났지만 광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팀은 이후 득점에 실패하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한편 이번 개막에도 이날 경기장에는 4690명이 입장해 2월 축구를 즐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